

# 대형 온라인 강좌의 설계와 운영 방안 모색: 재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Effective Design and Operation of Massive Online Courses: A Survey on Learners' Satisfaction and Needs

장진영\*, 김령희, 손나경, 신호정, 정현숙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사 칼리지

Jinyoung Jang\*, Younghee Kim, Nagyung Sohn, Hyojung Shin, Hyunsook Jeong

Tabula Rasa College, Keimyung University, Daegu 42601, Korea

### [ 요약 ]

21세기 들어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활성화로 온라인 강좌와 웹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이 고등교육 분야에서 증가되어 왔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은 대학 캠퍼스를 국내외로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수혜자도 일반인과 타대학 학생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 구조의 재편과 같은 변화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K대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 강좌에 대한 만족도, 대형 온라인 강좌를 필요로 하는 영역, 현재 개설된 대형 온라인 강좌의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K대학교 재학생의 온라인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각각의 온라인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온라인 강좌의 체계 통일성을 높여야 함과 온라인 강좌를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연과학에 대한 선호도에서 일반인과 재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수학, 물리와 같은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하고 온라인 강좌로 만들어서 전공 수업에 대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인의 경우 인문학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고등학생과 재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양함양이라는 강의 목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Abstract ]

The advancement of online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has increased online courses and web-based communication in higher education. This type of education is not limited by time or location and has made it possible to expand university campuses globally and broaden the reach of university education to the general public and students from other universities. Changes such as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a re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structure have also created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online education. In this paper, we conducted surveys on K University students, high school seniors, and the general public to assess their satisfaction with online courses, identify areas that require massive online courses, and determine students' needs for the operation of massive online courses. The survey showed that K University students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online courses. However,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sure a smooth online course-taking environment, increase system uniformity, and enhance

<http://dx.doi.org/10.14702/JPEE.2023.07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16 March 2023; Revised 25 April 2023

Accepted 26 April 2023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ng567@kmu.ac.kr](mailto:jang567@kmu.ac.kr)

the overall online course environment. High school students have a strong preference for natural science and should be offered online courses in subjects such as mathematics and physics as prerequisites to prepare for their major classes. The general public prefers the humanities, which is evident in the purpose of the liberal arts lectures.

**Key Words:** Desired fields for online course, Elements of course selection, Improvement of course environment, Online education, Satisfaction with online courses

## I. 서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은 대학 캠퍼스를 국내외로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수혜자도 일반인과 타 대학 학생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 구조의 재편과 같은 변화 또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교양과목에서 대형 온라인 강좌를 활용한다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양을 쌓을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제공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수강할 수 있는 명품 교양강좌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대형 온라인 강좌의 증설 필요성과 가능성은 이미 중론의 여지가 없으나, 과목 개설과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미 개설된 과목의 운영 평가와 방향 제시를 제공할 컨트롤 타워는 미비한 상황이며 상당 부분이 과목 개설자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효과적인 대형 온라인 강좌의 운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K대학교 재학생, 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형 온라인 강좌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어느 곳인지, 현재 개설된 대형 온라인 강좌에 대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온라인 강의 관련 연구 현황

2019년 12월 COVID-19 이후 사회 전반적인 삶의 방식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왔던 온라인 교육 분야로의 전환이 일시에 발생하였다. 학계에서도 2019년 이전의 연구 동향과 2020년 이후의 연구 동향은 전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예를 들면 황영희(2016), 전영희, 나유정(2020) 등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대학 혹은 사이버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화상 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법의 개발과 연구, 훈련된 시스템 관리자와 조교, 네트워크 시스템 및 기기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5,8]. 이에 비해 2020년 이후의 경우는 전체 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강좌 혹은 학문 전반적인 분야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고찰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로 전환되었다. 홍성연(2020), 김문주(2021), 이지은(2021) 등은 대형 온라인 교양과목의 수업 구성, 수업 진행, 수업 주제, 평가 방법 등에 관해 실제 수업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1,4,9]. 김소희, 조성희, 김주연(2021), 김혜정(2021) 등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강좌의 문제점으로 여겨왔던 학습자 관리의 분야에서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니즈 분석 및 개선책을 탐색하고 있으며[2,3] 황영아, 정소미(2022)에서는 수업 설계 및 운영 컨설팅, 수업 조교 배치, 교수법 특강, 수업 계획서 컨설팅 등 대학 차원의 온라인 강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6,7].

## III. 대형 온라인 강좌의 설계와 운영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본 설문의 목적은 온라인 대형 강좌에 대한 인식과 향후 온라인 강의에 대한 수요 및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실시 기간 및 방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11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을 진행하는 주체와 설문의 목적을 설명한 후 구글 설문(Google Survey)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K대학교 재학생 100명, 고등학생 117명, 일반인 125명, 총 342명으로 재학생, 고등학생, 일반인으로 분류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재학생 8문항, 고등학생 7문항, 일반인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대상에 따라 문항을 다르게 제시하였으며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는 현재 수강 중인 온라인 강좌(K대학교에서 수강중인 K-MOOC와 OCW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보다 향상된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해 개선할 지점을 진단하여 추후 온라인 강좌 개설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자 문항을 설계하였다. 고등학생과 일반인 대상 설문 문항은 온라인 대형 강좌에 대한 현재의 인식도와 필요도를 알아보고 향후 수강하고 싶은 온라인 대형 강좌 분야에 대한 수요도를 알아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문항을 설계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방법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적

통계 기법인 빈도 분석을 활용하였고 일부 문항에는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빈칸을 추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첨가하도록 하였으며 재학생, 일반인, 고등학생 그룹을 문항별로 각각 분석한 후 그룹 간 비교 분석하였다.

### A.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재학생의 경우 수강자 중 남학생의 비율은 35명으로 35%이고 여학생은 65명으로 65%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과 4학년이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다. 본 설문 결과로 한정할 때 온라인 강좌는 여학생들의 수요도가 높고 대학 생활에 익숙해진 2학년 이상의 재학생과 졸업을 위해 학점 취득이 필요한 4학년 학생들에게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온라인 강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좌 주제(25%)와 공간 제약(25%)에 비해 학점 취득(50%)이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있다.

온라인 강좌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온라인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95%의 응답자가 현재 제공되는 온라인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식 응답과 복수 응답 모두 가능한 상태에서 응답을 받

았다. 표 3에서 온라인 강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시간 효율성이 35.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반복 학습(21.7%), 접근성(19.1%) 순으로 나왔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안전’이라는 응답이 있다. 재학생들이 온라인 강좌를 듣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시간적으로 융통성이 높은 온라인 환경에서 학점을 취득하려는 것이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표 4는 온라인 강좌 수강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92%의 응답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등 현재 온라인 강좌의 수강생들은 수강 환경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오프라인 강좌 대비 온라인 강좌의 장점

Table 3. Advantages of Online Courses Compared to Offline Courses

	응답수	백분율(%)
접근성	44	19.1
시간 효율성	82	35.7
반복 학습	50	21.7
진도 조절	42	18.3
교수의 명확한 전달	10	4.3
기타 응답	2	0.9
계	230	100%

표 1. 현재 수강하는 온라인 강좌 선택 이유

Table 1. Reasons for Choosing Currently Enrolled Online Courses

	응답수	백분율(%)
강좌 주제	25	25
공간 제약	25	25
학점 취득	49	49
기타	1	1
계	100	100

표 2. 현재 수강중인 온라인 강좌로 얻는 정보의 만족도

Table 2. Satisfaction with Information Obtained from Currently Enrolled Online Courses

	응답수	백분율(%)
매우 그렇다	34	34
그렇다	29	29
보통이다	32	32
그렇지 않다	1	1
매우 그렇지 않다	4	4
계	100	100

표 4. 대학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

Table 4. Satisfaction with Information and Support Received from the University

	응답수	백분율(%)
매우 그렇다	26	26
그렇다	36	36
보통이다	30	30
그렇지 않다	5	5
매우 그렇지 않다	3	3
계	100	100

표 5. 대학으로부터 더 제공받기 원하는 지원

Table 5. Desired Support to Receive from the University

	응답수	백분율(%)
시스템의 안정화	42	42
조교의 도움	9	9
수강공간 확보	13	13
통일된 온라인 강좌들	26	26
기타	10	10
계	100	100

표 6. 온라인 강좌 개설 희망 분야

Table 6. Desired Fields for Online Course Offerings

	응답수	백분율(%)
인문학	14	6.8
자연과학	10	4.9
예술	40	19.5
어학	22	10.7
IT 관련	32	15.6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63	30.7
계절학기 대응 과목	22	10.7
사회과학	1	0.5
기타	1	0.5
계	205	100

표 5에서 전체적인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묻는 문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시스템의 안정화(42%), 통일된 온라인 강좌 플랫폼(26%), 수강공간 확보(13%), 조교의 도움(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점수 물어봐서 알려주는 것보다 본인 성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의 최신화’, ‘교수님과의 원활한 소통’, ‘빠른 출석 인정’, ‘중간시험이 없다고 하겠지만 있고 대체 과제도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개선’, ‘현재도 만족스럽습니다’, ‘없음’ 등이 있다. 다만, 시스템의 안정화와 통일된 온라인 플랫폼이 응답률이 높은 것은 수강자들의 개별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강좌를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아직 미흡하고 강좌들 간에 일정한 체계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강좌 수강임에도 불구하고 ‘수강공간 확보’에 대해 13%나 응답한 것은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를 동시에 수강할 경우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6에서 앞으로 개설되기를 원하는 온라인 과목으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이 3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술 19.5%, IT 관련 과목 15.6%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문학(6.8%), 자연과학(4.9%), 사회과학(0.5%)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IT 관련 과목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에 대한 수요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와 비슷한 수치이다. 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에 대한 재학생들의 응답이 낮은 것은 기존 온라인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주로 이런 과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예술 관련 온라인 과목(19.5%) 수요가 높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예술, IT 관련 과목

등을 추가하여 온라인 과목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B. 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45명으로 38.5%, 여학생이 72명으로 61.5%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소속 분야의 경우 문과 57명 48.7%, 이과 54명 46.2%, 예체능 4명 3.4%, 실업계 2명 1.7%로 문과와 이과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체능과 실업계도 소수 분포하고 있다.

표 7에서 대학에서 개설되는 온라인 강좌 수강 의향의 경우 74.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등 대학교의 온라인 강좌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설문 대상자가 수능시험을 끝낸 고3임을 고려해볼 때 고3에서 대학 입학 전까지의 기간 동안 예비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에서 온라인 강좌 선택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흥미가 35%, 강좌 주제가 28.2%로 강의 자체에 대한 요인이 63.2%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강좌의 특성상 접근용이성도 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표 7. 대학 개설 온라인 강좌 수강 의향

Table 7. Intentions to Take Online Courses Offered by the University

	응답수	백분율(%)
매우 그렇다	17	14.5
그렇다	28	23.9
보통이다	42	35.9
그렇지 않다	16	13.7
매우 그렇지 않다	14	12
계	117	100

표 8. 온라인 강좌 선택 시 중요 요소

Table 8. Important Factors in Choosing Online Courses

	응답수	백분율(%)
흥미	41	35
강좌 주제	33	28.2
학점 취득	23	19.7
접근 용이성	10	8.5
자격증	8	6.8
수료증 학점 취득	1	0.9
비용	1	0.9
계	117	100

관한 응답도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료증, 학점 취득, 비용 등이 각 0.9%를 차지하고 있다.

표 9에서 개설 희망 온라인 강좌의 분야로는 자격증 취득 과목이 23.1%로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이며 IT 관련 과목도 19.8%로 많은 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자격증 취득과 IT 관련 과목에 대한 선호는 일반인 혹은 재학생과 다른 고등학생 응답자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인문학이 15.6%, 자연과학이 14.6%, 예술이 14.2%, 어학이 8.0%, 계절학기 대용 과목이 4.2%, 금융 경제가 0.5% 나타나고 있는 등 자연과학에 관한 수요도 일반인 혹은 재학생과 다른 고등학생 응답자의 특징으로 향후 수학, 물리 등의 선수과목에 대한 수요도 예측된다.

표 10에서 온라인 강좌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자격증 19.6%, 진로 탐색 19.3%, 학점 취득 18.2%로 실용적인 목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교양 함양, 자기 만족 등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진로 탐색의

비중(19.3%)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의 K대학교 진학 시 진로 탐색 혹은 학과 선택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강좌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C.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일반인의 경우 남성이 51명으로 40.8%, 여성이 74명으로 59.2%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는 10대 3명 2.4%, 20대 22명 17.9%, 30대 3명 2.4%, 40대 25명 20.3%, 50대 65명 52.8%, 60대 2명 1.6%, 70대 3명 2.4%로 40대와 50대의 일반인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강좌 수강 경험에 관해서 96명(76.8%)이 수강 경험이 없었으나 향후 수강 계획에 있어서는 83명(79%)이 수강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는 향후 강좌 개발 시 강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

표 9. K대학교 온라인 강좌 개설 희망 분야

Table 9. Desired Fields for Online Course Offerings at K University

개설 희망 분야	응답수	백분율(%)
자격증 취득 과목	49	23.1
IT 관련	42	19.8
인문학	33	15.6
자연과학	31	14.6
예술	30	14.2
어학	17	8.0
계절학기 대용과목	9	4.2
금융 경제	1	0.5
계	212	100

표 10. K대학교 개설 온라인 강좌를 통해 얻고 싶은 것

Table 10. Desired Outcomes from Taking Online Courses Offered by K University

	응답수	백분율(%)
자격증	53	19.6
진로 탐색	52	19.3
학점 취득	49	18.2
교양 함양	44	16.3
자기 만족	40	14.8
수료증	19	7.0
대학편의시설 이용	13	4.8
계	270	100

표 11. 온라인 강좌 선택 시 중요 요소

Table 11. Important Factors in Choosing Online Courses

강의선택 시 고려사항	응답자수	백분율(%)
강좌 주제	69	55.2
자격증	16	12.8
강의 진행 방식	15	12
접근 용이성	14	11.2
학점 취득	6	4.8
비용	5	4
수료증 취득	0	0
계	125	100

표 12. K대학교 온라인 강좌 개설 희망 분야

Table 12. Desired Fields for Online Course Offerings at K University

희망 개설 분야	응답수	백분율(%)
인문학	44	24.4
자격증 취득 과목	43	23.9
어학	33	18.3
예술	31	17.2
IT 관련	17	9.4
종교	9	5.0
취미	1	0.6
공학	1	0.6
글로벌 창업대학원	1	0.6
계	180	100

표 13. K대학교 개설 온라인 강좌를 통해 얻고 싶은 것

Table 13. Desired Outcomes from Taking Online Courses Offered by K University

수강목적	응답수	백분율(%)
교양 함양	64	32.5
자기 만족	44	22.3
자격증	42	21.3
진로 탐색	22	11.2
수료증	10	5.1
학점 취득	9	4.6
대학편의시설 이용	6	3.0
계	197	100

았다. 온라인 강좌 선택 시 강의 주제가 55.2%, 강의 진행 방식 12%로 강의 자체의 내적 요인이 전체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격증 12.8%, 학점 취득 4.8%로 실용적 요인이 전체 1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접근 용이성 11.2%, 비용 4% 등 외적 요인이 15.2%를 차지하고 있는 등 온라인 강좌의 특성 상 강의자체의 내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수강생 유인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참신한 주제와 내실 있는 내용, 흥미로운 강의 진행 등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표 12에서는 향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선점할 수 있는 강의의 컨텐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인문학 과목이 24.4%로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이고 자격증 취득 과목이 23.9%로 인문학과 거의 유사한 응답수를 보이고 있으며 어학 18.3%, 예술 17.2%가 유사한 수치로 뒤를 잇고 있다. 인문학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강의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호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강의를 제공할 경우 수요층이 가장 탄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이 용이한 자격증 과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K대학을 대표하는 예술, 종교를 융합할 수 있는 강좌를 개발한다면 수요층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온라인 강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K대학교만의 차별화된 강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에서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수강생 모집 전략과 강좌 개발의 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교양 함양 32.5%, 자기 만족 22.3%로 자기 계발의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격증 21.3%, 진로 탐색 11.2%, 수료증 5.1%, 학점 취득 4.6%로 실용적인 목적 또한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K대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 강좌에 대한 만족도, 대형 온라인 강좌를 필요로 하는 영역, 현재 개설된 대형 온라인 강좌의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K대학교 재학생의 온라인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각각의 온라인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온라인 강좌를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는 환경과 온라인 강좌의 체계 통일성을 높여야함과 온라인 강좌 수강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재학생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에 대해 낮은 수요를 보였는데 이는 기존에 개설된 과목들이 이런 영역의 과목이 대부분인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른 영역의 과목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 강좌의 주제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연과학에 대한 선호도에서 일반인과 재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수학, 물리와 같은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하고 온라인 강좌로 만들어서 전공 수업에 대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인의 경우 인문학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고등학생과 재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양함양이라는 강의 목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좌 개설 희망 분야로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요는 공통적이라고 보인다. 즉 재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IT 관련 과목에 대한 수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IT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하여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M. J. Kim, “The practice of online humanities classes using video lectures in the COVID-19 era,”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3, no. 2, pp. 125-144, February 2021.
- [2] S. H. Kim, S. H. Cho, and J. Y. Kim,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structor’s feedback, perceived student engagement, learning outcome and satisfaction in university online cours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17, no. 4, pp. 175-197, November 2021.

- [3] H. J. Kim, "Exploring the direction of online education as a university-level liberal arts course: Based on a non-face-to-face English class using a movie," *Journal of English Teaching through Movies and Media*, vol. 22, no. 1, pp. 65-90, February 2021.
- [4] J. Y. Lee,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Andragogy Today*, vol. 14, no. 2, pp. 51-80, May 2011.
- [5] Y. H. Chun and Y. J. Na, "A study on the elementary Japanese of OCU - Case analysis by questionnaire survey of cyber lecture students -,"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Daehan*, vol. 86, pp. 101-121, May 2020.
- [6] W. S. Choe and M. Y. Kim, "A study on development of meta-contents for a college level large scale on-line class instruction," *The Korean Journal of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s*, vol. 22, no. 3, pp. 62-82, December 2003.
- [7] Y. A. Hwang and S. M. Jeong, "A study on how to support online lectures in universities: Focused on AHP analysis for education exper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3, pp. 371-383, February 2022.
- [8] Y. H. Hwang, "A study on the current states and tasks of smart learning: The case of H cyber university," *The Korea Journal Japanese Education*, vol. 35, pp. 221-234, June 2016.
- [9] S. Y. Hong, "Teaching reflection on the general education courses in non-face-to-face environmen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4, no. 6, pp. 283-298, December 2020.



**장 진 영 (Jinyoung Jang)**\_종신회원

1998년 2월 :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석사  
 2004년 8월 :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  
 2010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칼리지 부교수  
 <관심분야>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인지언어학, 대조언어학, 교양교육



**김 령 희 (Younghee Kim)**\_정회원

1992년 2월 : 경북대학교 영문학 석사  
 2000년 2월 : 경북대학교 영문학 박사  
 2010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칼리지 조교수  
 <관심분야> 미국소설, 포스트모더니즘, SF 소설, 융복합 교육, 교양교육



**손 나 경 (Nagyung Sohn)**\_정회원

1991년 2월 : 경북대학교 영문학 석사  
 1999년 2월 : 경북대학교 영문학 박사  
 2013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칼리지 부교수  
 <관심분야> 번역, 번역학, SF 소설, 영어교육, 비교문학, 교양교육



**신 호 정 (Hyojung Shin)\_정회원**

2000년 2월 : 계명대학교 영문학 석사

2006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문학 박사

2018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칼리지 조교수

<관심분야> 화용론, 상호문화 화용론,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 사용(ELF: English as lingua franca), 교양교육



**정 현 숙 (Hyunsook Jeong)\_정회원**

1986년 2월 : 경북대학교 영문학 석사

1994년 8월 : 경북대학교 영문학 박사

2010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칼리지 부교수

<관심분야> 현대영미소설, 영미문학비평, 융복합 교육, 교양교육